

국민행동요령

생물학적 사고



1. 오염물질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고 119에 신고하기

- ※ 생물학적 사고 시 고열,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남



2.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기

- 오염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3. 화생방 일반 방독면과 보호복을 착용하여 신체 보호

- 호흡기를 통해 생물학적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



4. 오염이 의심스러운 경우, 물건을 사용하지 말고 119로 신고

- 의심스러운 물질에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않기



5. 감염여부 확인 및 진료

- 대피 후 안전지역에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보기

국민행동요령

방사성 물질 사고



1. 현장에서 탈출하여 최대한 지하층으로 대피하기



2. 외부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 모든 창문을 닫고, 환풍기와 에어컨 끄기



3. 방사선 물질 오염 시 안전한 곳에서 제염

- 걸옷은 벗고, 비닐봉지에 밀봉하기
-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해 샤워하기



4.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요오드 알약 복용

- 요오드 복용 시 체내로 흡수되는 방사선 물질을 80%까지 막을 수 있음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화생방 사고 (화학·생물학·방사선 물질)



사고사례

“화생방 재난”이란

• 유독성 화학물질,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방사선 물질을 원인으로 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재난

• (화학)경북 구미 사업장 누출사고

- 일시** '12년 9월 27일 16시경
- 피해현황** 사망 5명
- 사건개요** 불산을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



• (생물학)도쿄 지하철 독가스(사린) 테러 사고

- 일시** '95년 3월 20일 08시경
- 피해현황** 사망 13명, 부상 6,200여 명
- 사건개요** 비닐 봉투에 구멍을 내어 고의적 살포



• (방사성 물질)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 일시** '20년 1월 10일 13시경
- 사건개요** 자연 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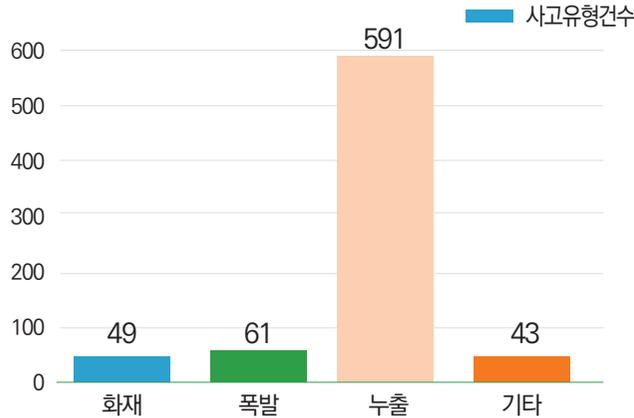


현황 및 주요 원인

전국 화생방사고통계(최근 9년간, '14년~'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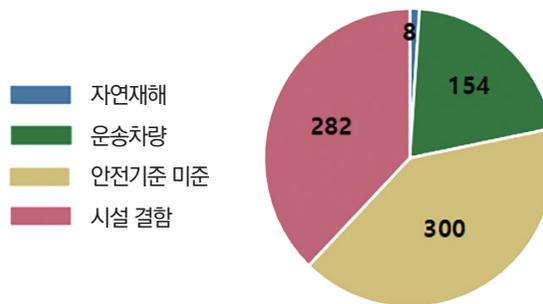
사고 구분(건)	화학	생물학적	방사선 물질
744	744	0	1

• 유형별 통계 : 가장 많은 “누출”사고



- 744건의 사고 중 누출사고 591건(79.4%) 가장 빈번하게 발생

• 사고 형태별 통계 : 가장 많은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 및 “시설결함”



- 안전기준 미준수(인적 부주의), 시설결함, 운송차량, 자연재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국민행동요령

화학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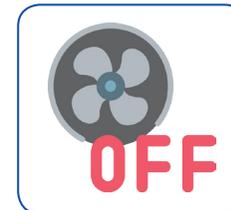
1. 화학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119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



2. 대피 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
 - 독성물질은 바닥에 깔리므로 높은 곳으로 대피



3. 호흡기 보호를 위해 호흡기 보호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천이나 손수건으로 입 가리기



4. 사고지역을 운행 중일 때 창문을 닫고 에어컨 또는 히터 끄기



5. 온몸을 깨끗이 씻고, 노출된 옷과 신발은 밀봉하여 버리기